



14 정년연구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정년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진하
서 기 이병설

1. 조직

- 위 원 장 : 김진하
- 회 계 : 이해규
- 위 원 : 박인규
- 서 기 : 이병설
- 총 무 : 한종욱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10. 26(월) 09: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진하 목사, 서기: 이병설 목사, 회계: 이해규 장로
총무: 한종욱 목사, 위원: 박인규 장로
- ②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 및 헌의안을 확인하고 각 위원별로 한 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다음 모임에 논의하기로 하다.
- ③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지역별로 나누어 하기로 하고 예산을 포함한 세부 시행사항은 다음 모임에 논의하기로 하다.
- ④ 설문조사는 공청회 이후에 하기로 하다.
- ⑤ 차기회의는 2021년 2월 25일(목) 11시에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2. 25(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연구주제와 연구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하다.
가.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른 목회역량 비교연구(오태균 교수)
나. 목회자의 정년으로 인한 교단탈퇴 현황분석(양현표 교수)
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회 정년을 어떻게 해야 하나?(신종철 목사)
- ② 재정부의 건축 재정 운용 협조의 건을 참조하여 공청회는 1회만 진행하기로 하고 장소와 날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다.
- ③ 차기회의는 2021년 3월 30일(화) 11시에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1. 3. 30(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기 공청회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금번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가. 일시 및 장소: 2021. 5. 27(목) 10:30 ~ 13:00, 예수사랑교회(당회장: 김진하)
 나. 초청대상 및 인원: 총대 및 관심있는 분
 * 본당: 최대 650석의 30% 수용,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본당 수용인원 변경 예정
 * 부속실: 그 외 인원
 다. 광고: 기독교신문 5월 11일자 2면 흑백광고
 라. 소책자는 제작하기로 하되 박인규 위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연구주제 중 '목회자의 정년으로 인한 교단탈퇴 현황분석'을 '설문조사를 통한 목회자 정년 비교·분석'으로 변경하고 양현표 교수에게 정년 관련 설문지 제작, 설문결과 분석을 맡기기로 하며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가. 대상: 전국 노회 담임목사와 노회총대(목사, 장로)
 나. 방법: 노회 서기에게 설문조사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 문자발송
 다. 기간: 4월 19일(월) ~ 24일(토)
- ③ 차기 회의는 2021년 5월 4일(화) 11시에 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1. 5. 4(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공청회 세부계획(안)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예배 순서는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인도(김진하 목사), 기도(이병설 목사), 성경봉독(박인규 장로), 설교(총회장 소강석 목사), 격려사(총회총무 고영기 목사), 축도(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광고(이병설 목사)
- ③ 공청회는 유튜브 '예수사랑교회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하고, 녹화본은 '총회 TV' 채널에 공개하기로 하다.
- ④ 공청회 예산(안)을 확인하고, 여비 및 순서비를 제외한 공청회 비용은 예수사랑교회(당회장: 김진하 목사)로부터 후원받기로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2021년 5월 27일(목) 9시 30분에 예수사랑교회에서 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1. 7. 2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정년연구위원회 공청회 지출액 중 6,840,000원을 정년연구위원장으로부터 후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결산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정년연구위원회 총회보고자료 초안을 검토하고 추후 보고사항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3. 연구 최종보고

1) 정년연구에 대한 설문조사

(1) 정년연구를 위한 총회 총대 대상 1차 설문조사 (2020. 3. 9~3. 18)

제104회 총회 총대 1,56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총 802명이 응답해 51.15%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현행대로 하자(43%),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45%), 정년을 하향조정해야 한다(12%) 였다.

(2) 정년연구를 위한 노회 총대 대상 2차 설문조사 (2021. 4. 12~4. 19)

교단 산하 150여 노회의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총 3,425명이 응답하였는데, 목사가 2,638명 그리고 장로가 787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47%),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38%), 정년을 하향해야 한다(15%) 였다.

2) 정년연구에 대한 공청회 및 연구주제발표

(1) 1차 공청회: 2020. 4. 21(화), 새에덴교회

① 정년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서창원 교수)

서창원 교수는 성경에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으며 여호와께서 기쁨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 제한이 없었고,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이 아니며 이익창출을 위한 기관도 아니고 오직 교회는 주 안에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참된 신뢰 안에서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공동체이므로 정년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목사 정년 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양현표 교수)

양현표 교수는 교단의 미래를 볼 때 “우리 총회가 지금의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면, 향후 10여년 전후로부터 목사 부족 사태가 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예측하며 총회의 균형 잡힌 목사 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 외에도 신학교 지원자의 숫자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총회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년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장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③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제도 비교 연구 - 목회자 정년이 본 교단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이희성 교수)

이희성 교수는 국내외의 주요 교단의 목회자 정년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발표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미국개혁신교회(RCA)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교단은 목회자의 70세 정년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70세가 된 목회자도 정년을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 70세가 된 목회자라도 개 교회와의 합의하에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면 노회를 거쳐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도, 아니면 일정 기간 위임의 형식으로 목회사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표했다. 따라서 본 교단도 교단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 혹은 축소가 아닌,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교회의 목회방식, 교회문화,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등 목회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교단은 정년에 대한 큰 틀은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인 연 장이나 개 교회의 목회 환경을 고려하여 개교회의 정관이나 공동의회와 소속 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④ 목회자 은퇴연장에 관한 효용성과 확실성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연구 (김근수 교수)

김근수 교수는 우리 교단이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며 정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근수교수는 교단의 정년제 규정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 교회와 목회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본다 며 결론을 맺고 발제를 마쳤다.

(2) 2차 공청회: 2021. 5. 27(목), 예수사랑교회

① 생애 주기에 따른 목회 역량 비교 분석-목회자의 정년 연장 안에 대한 평신도, 부교역자, 담임 목회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오태균 교수)

오태균 교수는 현재 총회에서는 다수의 노회에서 목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현의안이 지속적 으로 상정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은 현재 담임목회자의 정 체 현상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의 진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목회 정년에 대한 논의가 농어산촌에서 목회하 던 목회자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 대책이 되지 않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교단차원에서 은급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소속 목사, 장로 대상 “정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연구서 (양현표 교수)

양현표 교수는 30여 년 전 우리 교단에 왜 정년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 하고, 그때와 비교하여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감안하여 정년제도에 대한 적절한 처 방을 내려야 하되 급변에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설문조사는 단지 교단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양현표 교수는 교단의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로 목사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10여 년쯤 후면 다가올 목사 부족 현상에 대한 정년 연장 내지 폐지를 고려해야 한 다고 보았다.

③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회자의 정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종철 목사)

신종철 목사는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며 목회자 정년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재정 상태의 심각성은 더욱더 심화되어 갈 것이며 목회자 정년으로 인해 은퇴 목회자(노 인) 빈곤층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종철 목사는 성경에 목회자의 정년에 대하 여 언급한 곳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목회자의 은퇴의 나이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미국 개혁 교회 교단을 사례로 목사 정년에 관련하여 이렇게 제안하였다.

목사 정년에 관하여는 현행(교단 헌법)대로 만 70세로 하되 노회가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목 사 정년을 만 3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 좋겠다. 단 총회 총대와 노회에서의 공직 사역들은 만 70세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노회가 허락한 3년간은 오로지 개 교회 목양 사역(목회)에만 전념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연구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

교회직원 정년제 헌법대로 시행(연장 불가)하자는 건과 정년을 연장하자는 건과 항존직 정년 폐지하자는 건을 연구토록 함

2. 정년연구위원회의 제안 및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는 정년연구위원회의 조직을 결의하여 정년연구위원회는 1년 동안 연구하였으나 제105회 총회에서 한 회기를 연장하여 심도깊은 연구 결과를 106회 총회에 최종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본 정년연구위원회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공청회(2020.4.21.), 2차 공청회(2021.5.27.)를 통하여 정년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정년연구위원회는 제104회 총회로부터 정년연구에 대한 수임사항에 대하여 104회기와 105회기 동안 2회의 설문조사와 2회의 공청회를 통한 연구자 6명의 연구 발표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가 40%이상이었으며 연구 주제별 결론으로 볼 때 연구자 5명은 미래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1명의 연구자만이 사회적 인식과 다음 세대의 목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년을 현행대로 하자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정년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보고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며 대외활동은 금한다’는 연구결론을 106회 총회에 보고하오니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정년연구위원회 청원의 건

정년연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며 대외활동은 금한다’ 로 청원하오니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서기 이병설